

공모지원 선정 기준 및 이유

‘생애 첫 작품발표회’는 신진 작곡가의 발굴 및 창작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진 작곡가에 대해 생애 첫 작품 발표회 개최 지원금으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외에도 선정 작곡가 워크숍, 전문스태프 인력, 연주실황 녹음, 포트폴리오 제작 등 향후 작곡가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은 1차(상반기)와 2차(하반기)로 나뉘어 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모두 17건의 사업을 지원 접수하였다.

심사위원들은 논의를 거친 뒤 1차 서류심사에서는 심의기준 중 작품활동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50%)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이어 2차 심사에서는 발표작품의 예술성(50%)에 중점을 두어 악보 및 음원 등의 참고자료를 토대로 심층 심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총 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신혁진의 ‘신혁진 작품발표회-음악과 영감’의 경우는 고전과 현대의 스타일을 잘 절충한 데다 친숙해지기 쉬운 음악 어법을 지녔으며, 이문석의 ‘이문석 작곡 발표회...그리고 음악’의 경우는 다양한 편성과 장르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다각도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장은호의 ‘창작음악 실험무대’는 우리의 전통 독주곡 형식인 산조와 서양 현대음악의 어법을 결합하여 풀어감으로써 동서양의 음악적 융합을 시도했다는 아이디어가 훌륭했다. 한대섭의 ‘생애 첫 작품발표회’ 역시 다양한 편성과 구성이 돋보였으며, 황성곤의 ‘Close Encounter-근접’은 재즈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흥미롭다는 인상을 주었다.

심사위원들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아쉽게 탈락한 분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본 사업이 일회성 지원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